

흙으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도예학과 재학생-동문 공동 전시회

조한음 기자 jhn0102114@khu.ac.kr

【국제】 도예학과 동문과 재학생이 도자기 작품으로 한 공간에 모인 전시를 선보였다. ‘도자기 그룹 형(形)’의 40주년 기념전과 도예학과 과제전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예술디자인대학관 A&D 갤러리에서 공동으로 열렸다.

도자기 그룹 형(形)은 도예학과 81학번 여성 동문 5명의 주도하에 1985년 결성된 모임이다. 창립 멤버 5인은 지금까지 총 스물네 번의 회원전을 개최하며 열정과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여성 도예인은 출산과 육아, 경력 단절, 경제적 문제 등으로 현실의 장벽을 마주해야 했다. 형 그룹은 어려움에 부딪힌 도예학과 후배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언제든지 예술가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형 그룹은 모교인 우리학교에서 기념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재학생 작품을 선보이는 도예학과 과제전과 공동 개



‘도자기 그룹 형(形)’의 40주년 기념전과 도예학과 과제전이 예술디자인대학관 A&D 갤러리에서 공동으로 열렸다. (사진=조한음 기자)

최하기로 한 점도 더욱 뜻깊다. 전시는 평소 형 그룹과 교류를 이어온 김승욱(도예학) 교수의 제안으로 추진됐으며, 학생회와 여성동문회의 협력을 통해 전시가 마련됐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18명의 회원

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예술적 여정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는 ‘우리였던 순간들’이라는 주제 아래 가족, 친구, 집 등 개인의 소중한 추억과 관계를 도자기 작품 속에 녹여냈다. 고전적인 미감과 함

께 삶의 다채로운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아내 관람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전시에 참여한 이보미(도예학 2003) 씨는 “이번 전시가 40주년의 의미도 있지만,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뜻깊고, 초심을 찾는 기분이 들었다”며 “후배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전과 공동 개최하면서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도예학과 과제전은 재학생의 창작 역량과 예술 비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장을 가득 채운 작품들에 담긴 저마다의 개성과 노고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관람객 한서는(디지털콘텐츠학 2025) 씨는 “예술디자인대학 통합 전시회에서 도예 작품을 본 경험이 인상 깊어, 이번에도 관심을 가지고 방문했다”며, “평면 디자인과 달리, 도예 작품은 실제 형태로 존재해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감상을 전했다.

전시기획을 맡은 고찬란(도예학 2023) 씨는 “이번 전시를 통해 동문 선배님들의 작업 세계를 직접 접하며, 도예가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귀감이 됐다”며, “선배님들의 작품과 나란히 놓임으로써 도예학과 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형 그룹 대표 이은주(도예학 2001) 씨는 “앞으로 후배 도예인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마주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배들의 발자취 속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필화 넘어 살아남은 창학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

이금화(경희기록관)

경희의유산②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의 창학정신이 정초된 책 『문화세계의 창조』는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두 번째 저서다. 책의 원고를 탈고한 1951년 5월 18일은 그가 경희의 전신인 신흥초급대학을 인수한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6월 30일 초판본이 출간됐다.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더욱이 화재로 부산 동광동 교사가 전소되면서 대학의 자료들과 함께 이 초판본도 대부분 유실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뒤에 언급될 필화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러던 것을 2014년 경희기록관장 김희찬 교수가 전국의 헌책방을 수소문해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책 표지에는 유엔 마크와 함께 푸른빛이 선명한 지구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표지가 그려진 1951년 당

시에는 아무도 우주에 나가 본 사람이 없었고, 당연히 지구의 색깔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푸른 지구는 저자 조영식 박사의 상상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 닫힌 이념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인간적인 세상, ‘문화세계’를 열어가자는 것이 『문화세계의 창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 책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소위 불온사상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1955년 7월, 당시 총장이던 조영식 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대학을 찬탈하려는 몇몇 이사와 교수들의 음모로 벌어진 일이었다.

조 총장의 구속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대학 사회는 물론 학계와 정부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수사당국은 정치, 철학 분야 이름 있는 학자들에게 의뢰해 책의 내용을 검토하게 했다. 문교부도 학술원에 정식



경희의 창학정신이 정초된 책 『문화세계의 창조』 책이다. (좌) 경희기록관장 김희찬 교수가 헌책방을 수소문해 입수한 책으로, 현재 경희기록관에 있다. (우)

으로 내용 감정을 위탁했다. 그 결과 이 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1956년 6월, 조 총장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대학은 물론 조 총장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를 계기로 경희는 구성원 모두의 결속을 더욱 강화해 개교 10주년을 향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바뀌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새로운



경희의 창학정신이 정초된 책 『문화세계의 창조』 책이다. (좌) 경희기록관장 김희찬 교수가 헌책방을 수소문해 입수한 책으로, 현재 경희기록관에 있다. (우)

세기는 새로운 정치 이념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정치인이 사용할 법한 문구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대립과 폭력, 무고한 살상을 불사하는 현실정치가 아니라 평화로운 인간의 인간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정치, 지구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간의 양심과 이성에 귀 기울이고, 이웃과 사회, 세계,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전일적 시민성을 저자는 강조한다.

책이 세상에 나온 지 74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문명의 위기 징후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책의 서문이 말하듯, “세계는 지금 조난당한 난파선!...묘안과 창의적인 방안을 찾지 않는 한 침몰은 막을 수 없다.” 이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메시지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세계는 결국 우리의 의식과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의식 세계가 현실을 만들고, 인간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보편과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 열린 마음. 그런 ‘인간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인류와 문명의 살길, ‘문화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저자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다.